

國際化시대의 露語露文學 교육과제

姜 德 洙
(韓國外大 露語科)

1. 沿 革

우리나라에서 노어노문학 교육의 효시는 1954년에 설립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노어과이다. 교수진으로는 우리나라 노어교육의 제1세대인 함일근·차영근·동완 교수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 가운데 함일근·차영근 두 교수는 일찍 강단을 떠나거나 타계하고 동완 교수만이 1987년 은퇴 시까지 현직교수로서 봉직하였다.

1960년대 초에 한국외대 노어과 제1기생인 김학수 교수가 동교 노어과에서 노문학을 담당하였다. 이 분은 '60년대초 美國 인디애나주립대에서 노문학 석사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체계적인 학문적 훈련을 받은 노문학도가 되었다. 이후 '60년대 말에 미국 하바드대에서 지역학 석사를 받은 조규화 교수가 한국외대 노어과에 부임하였다. 이 분은 러시아의 歷史와 政治를 전공한 분으로서 주로 노문법과 역사를 가르쳤다.

'70년대 초까지 노어노문학과 러시아에 관한 교육은 주로 이 세 분을 중심으로 한 교수진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것은 바로 한국외대 노어과의 역사인 동시에 한국 노어교육의 역사이다. 이처럼 한국외대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된 노어교육은 1974년 고려대에 노어노문학과가 설립

되면서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우선 1975년 동완 교수가 고려대로 옮긴 후 한국외대 노어과에는 노문학 전공의 이종진 교수가 부임하였다. 권철근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노어노문학의 역사는 고려대에 노어노문학과가 설립되기 이전인 1974년까지가 제1기로 분류된다. 이 시기에는 노어교육이 한국외대 노어과에 의해 독점적으로 시행되었다(1954~1973). 제2기는 한국외대 노어과와 고려대 노어노문학과가 共存하던 1974~1984년까지의 시기이다. 그리고 제3기는 서울대와 조선대에 각각 노어노문학과와 노어과가 설립된 때를 기점으로 올림픽이 열린 1988년까지로 볼 수 있다(1984~1988). 이런 관점에서 제4기는 매년 3~4개교씩 노어과 또는 노어노문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한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수진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외대 노어과의 창설 당시 함일근·차영근·동완 교수를 제1세대라 하면 김학수 교수를 필두로 한 한국외대 노어과 1기생들을 제2세대라 할 수 있다. 제1세대는 주로 일제 하에서 만주 등 외지에서 노어를 습득하였던 분들이며, 제2세대부터 비로소 한국땅에서 한국식 露語교육을 받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세대는 제1세대와 제

2세대에 의해 교육을 받은 한편 同僚로서 노어 교육에 참여한 분들이다.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 노어노문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세대로서 연령층은 50대 초반~40대 후반이다. 제4세대는 40대 초반~30대 후반에 속한 교수들로서 대부분 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뒤 미국이나 독일 등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新進學者들이다. 현재는 매년 1~2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는 추세여서 노어노문학과와 增設과 함께 노어노문학계는 양적으로 눈에 띄게 팽창하고 있다. 권철근 교수는 이들을 시기별로 제1세대는 1950년대, 제2세대는 1960년대, 제3세대는 1970년대, 제4세대는 1980년대부터 교육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노어노문학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보면, 제1기는 翻譯의 시대였다. 제1기에 활동을 시작한 제1세대와 제2세대 그리고 제3세대는 주로 번역활동을 통해 한국에 노문학을 보급시켰다. 노문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80년대에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한국슬라브학회(초대회장: 이인호 교수)의 결성으로 학문적 활동의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1986년에 제1권이 나온 한국슬라브학회의 「슬라브학보」는 비록 어문학과 사회과학의 綜合誌이긴 하나, 본격적인 노어노문학 논문이 실린 최초의 論文集이었다. 이어서 한국노어노문학회(초대회장: 김학수 교수)가 결성되어 노어노문학만을 위한 학술지가 1987년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2. 學部 教育課程의 現實

이러한 학술적 활동의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 노어교육에 관해서는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큰 變化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 노어교육은 거의 文法과 講讀 위주였다. 즉, '눈'을 위주로 하는 언어교육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경향이기도 하였지만, 소련과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언어구사의 기회나 필요성이 없었던 시기에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자연히 노어교육도 노어 구사능력의 제고에 중점이 놓여지

〈표 1〉 학과 설치 현황

대학명	학과명	설립 연도	교수진공별			외국인 교수수
			언어학	문학	사회 과학	
한국외대	노어과	1954	2	4	1	2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1974	1	4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1984	1	2		
조선대	노서아어과	1985	1	1	1	
중앙대	노어학과	1989	1	2		
부산외대	노어과	1989	1	1		1
경북대	노어노문학과	1990		2		
단국대	노어노문학과	1990	1	1		1
경남대	노어노문학과	1990		1		
건국대	러시아학과	1991		1		
경상대	소련학과	1991				1
배재대	소련학과	1990	1	1		1
연세대	노어노문학과	1991		1		
경희대	러시아어과	1992				
국제대	노어노문학과	1992				
효신여대	노어노문학과	1992				
성신외국 어전문대	노어과	1990		1		
장전 문대	노어과	1991		1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외대의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 구사능력의 함양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의 文化와 歷史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전통적으로 노어 구사능력, 즉 회화능력 提高를 위한 과목이 비중있게 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交流의 부재와 需要의 부족으로 인한 動機 결여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였다.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노어 會話能力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여 회화 과목의 비중이 증시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최근에 신설되는 노어과에서도 러시아인 교수를 적어도 1명씩은 반드시 초빙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될 만큼 회화교육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수강 학생 수나 초빙교수의 자질, 학생들의 진지성 결여 등의 문제로 인해 회화교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바가 있다.

노어교육을 위한 教育課程은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1~2학년 과정이 노어구사 및 이해능력을 제고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것은 노어가 영어처럼 보편화된 외국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

다. 가장 오래된 한국의대의 교과과정을 예로 들면, 1학년에서 노어강독(문법)과 언어실습 그리고 회화 이외에 러시아 문화가 배정되어 있다. 러시아문화 과목은 1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일반적이고 총론적인 이해를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대 노어학과에서는 러시아문화 과목 대신 러시아어를 1학년에 필수로 부과하고 있다. 2학년에서는 강독·문법·작문·회화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과목명칭 상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러시아 문학이나 언어학에 관한 이론적인 강의들은 대부분 3~4학년 과정에 편성되어 있다. 3~4학년 과정은 '노어과식' 교과과정과 '노문과식' 교과과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노어과식'은 지역학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교과과정에 노문학사, 19세기 노문학, 희곡,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문학이론 과목이나 노어 형태론, 노어 구문론, 노어 음성학과 같은 언어학 이론 과목 외에 러시아사, 소련사, 소련 정치경제 원강, 시사 실무 노어와 같은 사회과학이나 시사적인 과목들이 들어 있다. 베제대의 소련학과나 건국대 러시아학과의 교과과정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노문과식'은 순수 인문과학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교과과정에 역사나 정치경제에 관한 과목은 들어있지 않다.

'노어과식'이든 '노문과식'이든 공통점은 3~4학년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이 선택이며, 노어 구사능력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하여 김진원 교수는 노어 회화실력의 向上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학년에서도 노어 구사능력을 위한 必須 과목을 배정할 필요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어 교육에서 신문을 읽고 그만한 수준의 회화를 구사하는 데 필요한 최단기간은 2년 정도로 간주된다. 2년 정도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노어책을 읽고 기본적인 회화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노어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이 1~2학년에서 문법·강독·작문·회화에 중점이 두어진 것은 기본적인 노어 구사능력을 2년 안에 습득하도

록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3~4학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어문학, 역사 및 사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러시아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함이다. 더욱이 외국어 교육을 위한 녹음기 등 기본 장비가 널리 보급되어 있고, 러시아인을 만날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요즘에 대학교육이 會話나 講讀에 지나치게 얽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어 구사능력은 1~2학년 과정에서 완성되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3~4학년에서는 노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理論 과목을 통해 러시아 문학·언어·역사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創意力을 개발시켜야 한다.

이점에서 '노어과식'은 3~4학년 과정의 교과운영을 좀더 이론 중심으로, '노문과식'은 노어 구사능력의 향상을 위해 1~2학년 교과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大學院 및 特殊教育機關

언어훈련을 위주로 하는 특수 노어교육 기관으로서 한국의대에 통역대학원 한·노과와 외국어연수원의 노어과가 있다. 외국어연수원의 노어과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로 회화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아 주·야 매일 90분씩 개설되어 있다. 반면에 통역대학원 한·노과는 노어에 관한 전문인 양성 기관이다. 2년과정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모국어 구사 수준의 노어를 구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국어와 호환시킬 수 있는 한·노 통역사를 배출해 내고자 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언어훈련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하여 러시아의 문화·역사·시사문제를 한국의 제반 문제와 함께 이해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노어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입학이나 졸업도 대단히 어렵다. '91년도에는 7명의 졸업 예정자 중 2명만이 졸업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 노어 통역사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보수도 대단히 높다.

일반 대학원으로서의 노어노문학과는 외대·고대·서울대에 설치되어 있다. 교과과정은 노

문학 전공과 노어학 전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대학마다 비슷한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 세 대학이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학기에 같은 과목을 개설하여 한 교수의 강의를 듣게 하는 등 교과목 운영을 공동으로 하고, 교수들 간에 相互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新進學者들 사이에서 교류가 빈번한데, 이것은 학문적 교류와 유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한국외대 대학원 노어과에서는 학기당 8과목씩(문학 4·언어학 4) 개설되고, 고려대와 서울대에서는 학기당 3~4과목씩(문학 2·언어학 1~2) 개설되고 있다.

地域專門家 양성기관으로서 한국외대 대학원에는 東歐지역 연구학과가 있다. 주로 정치·경제·역사 분야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이 과정은 소련 및 동구지역의 지역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많은 졸업생들이 언론계, 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에서 활동중이다. 그런데 이 학과의 교과과정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이 학과의 교과과정은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소련 정치·소련 역사 등 지역사정에 대한 과목이 추가 되고,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한 과목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학준 교수의 지적대로 지역 전문가의 제1차적 구비요소는 해당지역 언어에 대한 구사능력이다. 그런데 이 학과에는 다양한 학부 출신이 입학할 수 있어 노어에 대한 일반적 구사능력이 다소 약한 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이나 졸업시험 등에 노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4. 露語會話教育의 問題點

현재 대학 노어교육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會話教育과 그것을 담당하는 外國人 敎授의 문제이다. 회화는 외국인을 만나야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러시아인을 교수로 초빙하기 위하여 각 대학마다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번째 문제는 외국인 교수의 資質 문제이다. 현재 초빙되어 온 러시아인 교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러시아인으로서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인에게 노어를 교육시키는 일에 종사하였던 전문강사들이다. 첫째 유형의 단점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를 보다 더 자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노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과 관심 영역도 노어보다는 한국어에 치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노어교육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형의 교수들은 노어 교수법에 대한 요령이나 방법에는 정통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엄격한 추천에 의한 선별적 초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 문제는 회화과목 수강 학생 수의 문제이다. 회화수업이 적절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15명 이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회화수업의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세번째 문제는 학생들의 자발적 參與意識이다. 회화과목은 특히 학생 개개인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초보자들이 회화 시간을 제대로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1시간의 수업을 위하여 스스로 2시간 이상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회화담당 외국인 교수와 제한된 범위에서 對話가 가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회화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회화능력의 향상은 단순히 외국인 교수에 의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만큼만 외국인 교수에 의해 제한적으로 촉발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5. 露語教育 向上과

專門家 養成을 위한 考慮

우리나라에서 노어교육의 역사는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다. 1954년 한국외대에 노어과가 개설된 지 벌써 37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제 1기, 제 2기,

제3기가 지나고, 이제 제4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현실적 바탕 위에 노어교육의 現場性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제4기에 들어서부터이다. 이제 곧 고등학교 과정에도 노어 과목이 포함될 것이고 노어의 교육방법과 목표에 대한 논의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는 國籍있는 노어교육, 한국어적 언어의식에 상응하는 노어 교재개발과 노어 교육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노어에 대한 기초교재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미국·일본·독일·소련에서 발행된 책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복사한 것들이다. 앞으로의 교재들은 한국인의 文化 의식과 言語 의식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어 구사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없이 소련에 가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사례가 늘어가는 추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한국외대 외국어연수원과 같은 과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무역회사들이 소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과정을 중복 개설하거나 많은

비용을 들여 현지로 보내는 것보다는 러시아인 교수들을 초빙하여 국내에서 集中教育을 시키는 것이 훨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한 地域專門家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에만 맡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産學協同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나 외무부, 공보처 등의 정부기관에서 소련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면, 기존의 지역학과 대학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기존의 지역학과 교육과정이나 운영으로 미흡하다면 산학협동 차원에서 실질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1~2명씩 소수 학생들을 소련에 파견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련의 교육과정에 의해 산발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유명 교수들을 초청하여 짝 짜여진 강의 스케줄에 따라 한국인 교수의 책임있는 지도와 관리 아래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소련에서의 교육은 국내에서 이러한 집중적인 교육을 제대로 마친 사람에게 現場感을 획득하도록 하는 기회제공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